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1)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1 (2)96사단 주둔지-(17)실체 드러난 사라봉갱도  
오름지하 갱도 5백여m... 군사요새 전형

입력 : 2007. 10.18. 00:00:00



▲제주시 사라봉 대형 갱도 내부를 취재팀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길이 250여m · 출입구 6곳 규모 대형갱도 제주시 도심공원 위치 불구 실체규명 안돼

대표적인 시민공원으로 유명한 제주시 사라봉에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섬을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갱도가 총 5백여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사라봉·별도봉 일대 일본군 군사시설 및 갱도진지와 연관된 4·3집단 학살현장에 대한 집중 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라봉에는 모두 7곳의 갱도진지가 구축되고 총 연장은 5백여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사라봉은 제주시권과 북동부 해안의 중요한 일본군 군사요새로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사라봉의 일본군 갱도진지는 일제 패망 6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있다'고만 알고 있지, 정작 그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탓이다.

사라봉(紗羅峰 · 제주시 건입동 387-1 · 표고 1백48.2m)은 하루에도 2천~3천명의 사람들이 찾

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해안절벽의 경승과 산의 정취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산책코스다. 동시에 이 일대는 제주 근현대사에 있어서 수난과 비극의 역사현장으로 꼽힌다.

이곳의 갯도진지는 오름 정상부 및 동~남~서쪽 사면에 집중 분포돼 있다. 갯도는 대부분 송이층을 뚫고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갯도는 길이가 2백 50여m에 이르는 대형이다. 갯도는 정상부에 서부터 오름 내부를 뚫고 6~7부 지점까지 구불구불 길게 이어졌다. 출입구만도 모두 6곳이 될 정도로 복잡한 구조다. 오름 정상부의 출입구는 북쪽방향으로, 하단부는 한라산을 마주하는 남쪽방향으로 나 있다. <도면 참조>

▲제주시 사라봉 기슭에 구축된 일본군 대형갯도 내부. 구불구불 이어진 벽면에 곡괭이 자국 등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정상부의 갯도 입구를 따라 급경사진 내부로 조심스레 진입하자 폭과 높이가 겨우 1m 정도 되는 통로가 길게 이어졌다. 한순간 숨이 턱 멎는 듯한 느낌이다. 갯도는 이어 조그만 방과 함께 폭과 높이가 2m 이상 되는 비교적 너른 지점이 나타난다. 이곳이 갯도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곳으로 출입구 2곳과 연계된다. 갯도 내부 벽면에는 손으로 굴착했음을 엿볼 수 있는 곡괭이자국과 등잔홈 등이 남아있다.



하지만 출입구와 가까운 내부는 바깥에서 밀려든 돌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정비대책이 요구된다.

나머지 갯도는 디귤자(ㄷ)형 등으로 길이가 10여m에서 60~70m에 이르는 소형도 있다.

▲갯도 도면

사라봉의 대형 갯도는 일제가 일본토사수를 위해 제주섬을 전쟁기지화 했던 역사현장이다. 제주시권에 구축된 대표적인 전쟁유적지 가운데 하나이자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국의 관심부족 등으로 역사적 성격 규명 및 보존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곳은 경관과 접근성이 좋은 시민공원인데다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학술조사를 통한 보존·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

### 왕조시대부터 군사·통신요충지로 주목...주변에 근·현대 및 향토역사 유적 풍부

사라봉은 왕조시대부터 요충지로 주목받았다. 제주의 관문역할을 했던 산지포구(제주항)가 있는데다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던 제주목관아와 가장 인접한 곳이기 때문이다.



▲사라봉 갭도 입구 앞에 나있는 교통호.

사라봉은 제주 해안에서 보내온 군사·통신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 즉 제주도내 각 봉수에서 전달된 정보는 사라봉수에서 취합돼서 제주목관아에 전달되는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다. 제주도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된 사라봉의 봉수대는 이른바 중앙의 '경봉수'(京烽燧)와 같은 기능

과 역할을 했다.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에서 보고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달하는 곳이다. 조선시대 중앙의 경봉수는 당시 목멱산(현재의 남산)에 설치됐다.

오름 정상부에는 팔각정 건물인 망양정(望洋亭)이 있고, 이곳서 바라보는 석양풍경은 '사봉낙조'(沙峰落照)라 할 정도로 운치있다.

또한 북쪽 사면 평탄대지에는 1917년 설립된 제주도 최초의 유인등대인 산지등대가 있다. 남쪽기슭에는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가 있다.

사라봉 일대는 '말림갯'으로 보호됐던 곳이다. '말림갯'은 조선시대부터 산의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단속하는 땅이나 산을 일컫는 곳을 말한다. 이처럼 사라봉은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